

삼성전자, LCD 치킨게임 승자되나?

1/4분기 시장점유율 28.7% 달성 ... 2/4분기에 탕정 8세대 2라인 가동

삼성전자가 1/4분기 세계 대형 LCD 시장에서 30%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며 질주하고 있다.

또한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국내 LCD 생산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분기 연속 50%를 돌파해, 반도체에 이어 LCD 시장에서도 국내기업들이 승기를 잡을 전망이다.

5월7일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09년 1/4분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시장에서 각각 28억8100만달러, 25억42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세계 시장점유율이 각각 28.7%, 25.4%로 나타났다.

2008년 4/4분기에도 각각 35억200만달러, 29억73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29.1%, 24.7%를 차지했으며 출하량에서도 양사의 합계가 2분기 연속 50%를 상회했다.

반면, AUO와 CPT 등 타이완 기업과 일본 샤프(Sharp)의 1분기 출하량 점유율은 전기대비 각각 2%p 줄어 치킨게임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.

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2008년 4/4분기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타이완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감산에 나섰던 영향도 있지만, 삼성전자가 2009년 2/4분기 생산라인 가동을 확대키로 해 무게중심이 당분간 국내기업으로 쏠릴 전망이다.

삼성전자는 2/4분기에 탕정 LCD 사업장의 8세대 2라인을 가동함으로써 2200×2500mm의 LCD 기판을 생산라인이 3개로 확대된다.

아울러 8세대 이후 차세대 라인의 규격을 3000×3320mm로 계획하고 있어 경쟁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07>